

녹색시민실천 · 참여문화 육성 열린 녹색행정구현 · 생산 녹색화 추구

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

설립배경 및 방향

쓰레기 문제를 공동사안으로 연대하고 각 회원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며, 쓰레기 문제에 대한 국민환경의식 제고,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및 제시, 시민들의 생활실천운동 활성화, 환경친화적인 쓰레기 관리, 재활용체계의 구축화,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량강화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-쓰시협(Korea Zero Waste Movement Network-KWMMN)은 지난 1997년 국내 240여 개의 환경·소비자·여성·시민단체가 전국적으로 공동 구성하여,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와 친환경적인 쓰레기 관리, 재활용체계의 구축 등 쓰레기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가기 위해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다.

쓰시협의 주요 활동 내용

- ①소각·매립 대안 운동
 - 소각·매립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 제안 및 제도개선운동

- 매립과 소각되는 최종 처리량의 감소를 위하여 재활용 및 분리수거 시스템 마련
- 소각장 건설예산 삭감운동(2000년 118억, 2004년 200억 삭감)
- 신규 소각장 반대운동 및 지역주민 지원사업
- ②포장폐기물 저감 운동 및 친환경용기 사용운동
 - 선물포장 포장재 공간비율을 적용하여 과대포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법제도, 감시운동, 합성수지 용기를 친환경용기로 교체하는 운동 등을 전개
 - 선물을 2중으로 포장안하기 감시운동
 - 완충제 친환경 포장재 사용운동(모업체 냉장고, TV등 가전제품 완충제 펄프몰드 사용함)
 - 친환경 포장재 사용운동(회용합성수지도시락용기를 친환경용기로 교체하도록 함)
- ③음식물쓰레기 감량/자원화 운동-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비율 40% 증가

지렁이, 닭, 오리 등을 이용한 도·농 순환농법을 제안하고 전국에 확산시켰으며, 지자체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을 촉발하는 계기를 만들었다. 음식물쓰레기 조례 제·개정 등 지속적인 사업은 결국 97년 9.8%에서 2000년 49.3%로 약 40%의 자원화 비율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.



하수슬리지 친환경 사용촉구를 위한 캠페인 활동 모습

-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대한 모니터 및 감시활동 (올바른 정착을 위한)
- 음식물쓰레기 20% 감량 자발적 협약을 통한 감량 운동(음식점, 대형급식소)
- 지역적 현안에 맞는 음식물 자원화 모델링 개발 (가정별 처리)
- 반찬가지수, 반찬량줄이기 운동
- ④유해·산업폐기물 적정관리 시스템 구축
 - 폐형광등, 폐건전지 분리배출 및 재활용 법제도 개선과 시민실천운동 전개.
 - 감염성폐기물 산업폐기물 원천감량과 관리 제도 개선 마련과 폐기물 관련 법규 정비활동
 - PVC 제품 등 다이옥신 유발 제품 사용규제운동
 - 폐휴대폰, 폐컴퓨터 재활용운동
- ⑤정책, 법제도 활동
 - 국가폐기물 종합계획 검토 및 제언
 - 폐기물관리법, 재활용정책 등 각종 제도, 법 검토 및 제언

- 국정감사에 쓰레기문제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
- ⑥정부 EPR 제도 도입 촉구를 통한 1회용품 줄이기 활동
 -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을(플라스틱 포장폐기물) EPR 통한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 마련함
 - 유해 폐기물 제품 EPR 품목으로 추가 확대 운동
 - EPR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모니터 활동 및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
- ⑦2002년 쓰레기없는 월드컵 개최로, KWMN 활동과 성과
 - ⑧2001년부터 친환경월드컵을 위한 시민참여 캠페인 전개를 통한 효과
 - 월드컵 이전 컨퍼더레이션 경기는 전국 평균 18.1톤 가량 발생하던 것이 월드컵 경기에서는 10.2톤 발생과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약 43.6% 감소하는 효과 가져옴
 - ⑨자기쓰레기되가져나오기, 분리수거 캠페인을 통한 경기장 문화로 정착운동



2002년 5월 31일, 상암개막전에서는 약 60%가 동참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각 경기장별로 자기쓰레기되 가져나오기에 참가하는 관중들이 늘어났다. 2002년 6월 25일, 4강 상암경기장 모니터 결과 90%이상이 자기쓰레기되 가져나오기에 동참

⑩경기장내 1회용응원도구 사용자제 캠페인

개막초기 야광봉과 일회용 응원용 막대풍선, 양면코팅 종이국기를 무료로 배부했으나, 쓰시협이 캠페인을 통한 일회용응원도구를 사용하지 말라는 제언에 따라 경기장내 일회용막대풍선 무료배부는 이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. 이 운동을 토대로 2002년 아시안게임에서는 조직위에서 응원도구로 나무주걱을 배부, 재

사용품을 이용하는 홍보응원 문화 정착

⑪경기장 매점 1회용품 비닐 안나눠주기 음식물 안 가져오기 운동 및 매점 국물 음식 안팔기 전개

경기장 쓰레기 감량을 위해 매점내 1회용 비닐 무료 배부금지, 국물 음식물 안팔기등 제언을 통해 이전의 게임에서 평균 24%의 발생량을 보이던 음식물 쓰레기가 거의 사라졌고, 또한 1회성 응원도구의 감소로 인해 비닐 및 종이류 등 전체평균 30% 발생하던 것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
⑫월드컵 이후로 경기장내 쓰레기 관리 성과

⑬경기장 쓰레기중 1회용 비닐제품이 가장 많이 차지한다. 1회용 쓰레기 줄이기 위해 응원용품 무료배부 금지 제도화 함. 쓰레기분리수거 시민참여 캠페인 활동 지속

쓰시협이 바라는바 및 추구하는 목표

쓰시협은 능동적인 녹색시민실천과 참여문화를 육성하고 녹색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녹색행정을 구현한다. 또한 녹색생산·녹색유통을 통한 생산의 녹색화 및 시민사회 녹색연대를 통한 내적역량의 강화를 추구한다.



쓰시협 김재욱 대표

2004년도 사업계획

쓰시협은 한국사회 자원재활용 관리능력평가를 위한 전국적 모니터링의 실시 및 자원순환백서의 발간을 계획하고 있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대한 시민평가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. 음식점 식단개선과 발생원 재활용기술 보급을 통한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의 대안을 마련하고 일회용품 사용저감을 위한 시민실천운동을 할 것이며, 소각장 반대 주민지원 및 시민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.

또한 2004년 총선을 녹색선거로 만들기 위한 시민감시활동과 유해물질·유해폐기물 저감과 안전관리를 위한 모델 개발 및 지속적인 시민사회 여론환기 사업 실시, 폐기물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 및 동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시민참여형 녹색폐기물행정모형 개발, POPs 협약 비준 촉구 및 WNA(Waste Not Asia)행사개최를



전국 소각장·매립장 주민감시 실천단 발족식 모습

통한 국제연대의 강화, 효율적인 폐기물 운동을 위한 시민사회, 주민단체 연대활동 및 정보지원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.